

광주 온 새누리당 대권주자 안상수 전 인천시장

“경선룰 찬성 못해... 당원 심판 받을 것”

새누리당 대권주자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9일 “현 대선 경선방식이 불리하고 어렵지만 소통의 노력과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판을 받겠다”며 “10일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원의 뜻을 배제하는 경선룰에는 찬성할 수 없지만 당내 경선에 참여해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오·정몽준 의원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반발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으로서도 큰

이재오·정몽준 불출마 선언

1차적으로 당 지도부 잘못

손실이다. 두 후보가 ‘불출마’ 선택이 아닌 완전 경선을 관철하기 위해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1차적으로 당 지도부의 잘못이다. 저도 경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원탁회의도 주관하고, 친박계의 일방적인 경선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 차례 반발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당내 뿐 아니라 국민적인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완전국민경선제가 아니어서 경선에서 불리할 텐데,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끝까지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 양식있는 국민은 박근혜 전

비박 연대 정서로 돌아갈 수 있다. 당 내부에서도 특정 계파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러워하고 있다. 친박계에 대한 불만 세력이 많다고 들었다. 현재 비박 연대와 관련해 후보 간 접촉은 없었지만,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광주와 전남 등 호남지역 정책 공약은 무엇이 있나,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속철도 조기 완공과 함께 광주의 문화·평화도시 발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5+2 정책도 잘못됐다. 지역을 크게 묶을 것

박근혜 ‘고집불통’ 리더십 걱정

비박 연대 가능성 열어놔

이 아니라 세분화시키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30여개의 거점도시를 만들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허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

광주에 문화·의료·쇼핑·교육에 대한 허브를 만들어주면 지방경제는 충분히 살 수 있다. 문화를 더 강화하고 세분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주요 대선공약은 ▲국민을 가계 부채로부터 해방시켜 함께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겠다. 가계 및 중소기업 부채의 원금상환 거주기간을 5년간 유예토록 할 것이다. 또한, 지방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하는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해볼 때 당내 정서가 ▲이재오·정몽준 후보가 경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해볼 때 당내 정서가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얼음터널에서 박람회 즐기세요”

무더위속 빙하코어·스카이다워 전망대 등 각광



남극의 블리자드(눈보라)를 체험할 수 있는 얼음터널, 1만5000년 된 빙하 코어, 보기만 해도 뒤통이 서늘한 스카이다워 유리전망대... 여수세계박람회의 ‘시원한 전시 시설’들이 각광받고 있다.

기후환경관은 매서운 추위의 남극과 북극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실제 얼음으로 만들어진 높이 5.3m, 가로 16m의 얼음터널에서는 영하 15℃의 기온과 풍속 30km의 블리자드를 경험할 수 있다. 얼음터널을 지나면 북극의 빙하와 이글루가 재현돼 있어 차가운 얼음을 직접 만져볼 수 있으며, 흐르던 땀마저 쫓겨 얼어붙게 할 정도다.

스위스관도 빼놓을 수 없는 시원한 전시관 중 하나다. 스위스 그니페티봉 만년설 82m 깊이에서 채취한 실

제 빙하를 직접 만날 수 있다. 전시된 빙하 코어의 길이는 3.5m, 지름은 8.5cm로 영하 10℃의 냉동실에 보관돼 있다. 관람객들은 이 냉동실 안으로 들어가 약 30초 동안 관람하며 더위를 식힐 수 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엑스포디지털갤러리(LEDG)와 빅오(Big-O)도 유명 피서지 부럽지 않은 곳이다. 엑스포디지털갤러리 LED전장은 여름철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주고 사방은 땀 뚫려 있어 시원한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온다.

빅오쇼도 시원한 남해안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져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는데 제격이다. 시원한 밤바람을 맞아야 하는 만큼, 노약자의 경우 관람을 위해서 얇은 겂옷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67m 높이의 스카이다워 유리 전망대로 시원한 남해 풍경을 선사해준 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오늘의 여수엑스포

아이어브뮤지컬은 유명 뮤지컬의 인기있는 넘바만을 골라 들려준다. ‘바다가 들려주는 얘기’를 주제로 여수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갈라쇼 특색에 맞춰 50분간 선보인다.

▲아이어브뮤지컬 (천막극장·오후 4시)
▲OECD 국제심포지엄(컨퍼런스홀·오전 9시30분)
▲팍페스티벌-브라운아이 드레스, 박상민, 50kg (특설무대·오후 8시)

▲어제의 관람객 수 =6만6718명(이하 9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 수 =319만 9600명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배상협상이 결정된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앞으로 잘해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에 ‘도전’ 문자

“총선 지원 불구 의장단 선거 도움 안줘... 4년뒤 맞붙자”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탈락한 민주당계 소속 시의원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자 당 최고위원에게 서운함(?)을 표시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역정가에 적지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제6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했다가 탈락한 진선진 의원이 최근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기정 최고위원에게 ‘정치적 이별’을 선언하고 4년 뒤 ‘도전’을 암시하

는 ‘앞으로 잘해보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강 최고위원이 경선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은데다 의장 선거 탈락 이후 위로 차원의 전화 한통이 없는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진 의원은 “4·11총선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강 의원을 위해 수 천명의 모바일 투표단을 모집해줬고, 20여 일 간 전국을

돌며 지원을 해줬는데도 단 한 차례도 경선과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다른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에서 나온 시의정 후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에 나섰는데 강 의원만 행보를 달리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강 의원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4년 뒤 총선에서 맞붙자는 뜻에서 앞으로 잘해보자고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중앙당 최고위원이 어떻게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관여할 수 있겠느냐”며 “또한, 진 의원이 의장선거에서 중립만 지켜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지역 정가에 알려지면서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은 민주당 시의원들 내에서도 갈수록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내 경선을 거친 뒤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호권 의장을 중심으로 한 ‘주류’와 경선에 고배를 마신 ‘비주류’ 의원 간의 합종연횡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양 측의 세력 싸움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근로정신대-日 미쓰비시 배상협상 결렬

시민모임 “한국법원에 소송·불매운동 전개”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배상 협상이 16차를 마지막으로 최종 결렬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협상결렬 선언과 함께 “항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반 미쓰비시 시위와 불매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3월 결성된 시민모임은 그해 12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파분’ 이후 일본 나고야와 도쿄를 오가며 진행한 16차례의 협상을 통해 ▲역사적 근거 함께 “항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반 미쓰비시 시위와 불매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측은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지원반이 관여하는 것은 개인 보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70여년의 세월동안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한 이유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탓”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 미쓰비시 운동 등의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최상의대출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할> ■ 일반상가 건물: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오피스, 투룸, 쓰리룸) <토지구할> ■ 지역: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200평~300평, 용도지역: 자연녹지, 용도: 주차장 ■ 참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용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매>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참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장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원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양도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33-1772, 111-602-2532 (광운역 신본정입, 대인동 소정서건-1번)

첨 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파실분환영! (8억~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기중!>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광주원룸매매> 원룸 파실분 대환영! (매수자 다수 대기중)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광주원룸매매> 토지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립니다! <우림공인중개사> 일곡지구 중심상가 및 집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 북성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북성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 1,730만원(21%)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 두암동 7층건물 164평 건물액600평(31%) 임대보증금 약의 월 1,500만원 토지(매매) ■ (상무지구) 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용가능,식당영업중) ■ (상무지구) 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반화기 사거리코너) ■ (상무지구) 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유용가능) ■ (상무지구) 3,400㎡(약1,000평) 평당 750만원(시정할) (회사사옥,오피스텔등 적합) ■ (동림지구) 준주거지 운암-하남 간대로면 4,470㎡(약 1,352평) -평당 330만 (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립니다.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어머내다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111-609-5221 (상무지구 이마트 근처 1층)